

2016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4. 14(목) 14:0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2차 심의 : 2016. 5. 12(목) 14:00, 대학로 이음센터 2층 커뮤니티룸

2016년도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은 총 44건이 접수되었고,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의는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5%), 공연작품의 예술성(35%), 공연단체의 역량(25%), 이전공연실적(계량/15%)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의에서는 2차 PT심의대상 7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 심의에서는 공연에 대한 계획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작품을 선정하였다.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공연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무엇보다 작품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그 중 재공연을 통해 작품의 질적 향상을 이룰 가능성이 많은 작품으로 총 4편을 선정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어린이극을 표방하면서도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지속적인 형식 실험을 통해 관객확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안녕 유에프오>도 대본의 보강계획이 구체적이고 시각적 연출전략 또한 의욕적이다. 관객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이다. <천변카바레>은 주크박스의 범주에 속하지만 기존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의 세련됨 뿐 아니라 뮤지컬 형식의 다변화와 관객층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토리의 개연성과 공연의 시각성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다. <콩칠팔 새삼륙>은 음악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독특한 소재가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야기의 보완과 무대화의 전략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의욕이 돋보인다. 재공연의 효과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창작뮤지컬은 텍스트의 가능성과 공연의 실제 사이에서 편차가 크게 드러나는 장르이기에, 지속적인 공연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 시장의 경쟁력과 예술적 공공성은 그 완성도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 재공연의 기회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작품들에게 재공연의 기회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재공연의 기회를 부여받은 공연들은 작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공연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16년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